

차례

이만제단 시대 5부

一. 승리자란?

- 1) 승리자란?
- 2) 승리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 3) 승리자는 구세주요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

二. 승리자는 조희성님

3) 승리자는 구세주요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기신은 당시 영모님이 증거할 당시에는 예수의 종으로서의 승리자를 말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모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구세주 출현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찾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식으로 영모님의 연막작전을 그 당시 상태 그대로 끝맺음을 하면 잘못 인식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설명할 시점에서는 당시 영모님의 연막작전과는 상관없이 그 대명사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 혼돈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승리자는 구세주의 대명사요,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당시 영모님은 이런 주인공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도 안 보이었다. 오직 예수의 종이라고만 증거할 뿐이었다.

승리자는 이기신 하나님 자체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승리자는 인류가 고대하던 구세주의 대명사가 되시는 것이다. 위에서 목시록 2장, 3장의 승리자에 대해서 일곱 번씩이나 말씀을 하신 내용을 밝혀 보았지만 그 내용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구세주 자체가 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잘못 인식되는 일이 있을까 봐 다시 한 번 밝혀두지만 구세주는 한 분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나타나서 일인으로 합일되셔야 완성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 갑탄나무도 세 분이요, 동방 의인도 세 분이다. 지금 영모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자도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도 밝히 알고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완성자 구세주가 어떤 방법으로 출현하시는 지를 그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각자 남사고 선생은 승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十勝道令出世(십승도령출세)하니 天下是非紛紛(천하사비분분)하다” 桃符神人(도부신인)

“이기신 하나님 정도령이 세상에 나타나시니 천하의 시비가 분분하다.”

“容天劍(용천검)을 높이들고 滅魔經(멸마경)을 외우면서 勝利大將後軍(승리대장후군)되어 不顧左右前進(불고좌우 전진)하고” 弓乙圖(궁을도가)

“검과 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멸마경을 외우면서 승리대장 후군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고

이와 같이 승리대장 또는 승리자 정도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사고 선생은 승리자 정도령이 나타나면 천하에서 시비가 분분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여도 너희들은 승리대장의 후군되어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二. 勝利者(승리자)는 曹熙星(조희성)님

1) 유불선(儒佛仙) 합일된 주인공이 승리자이다

박태선 영모님이 그토록 강하게 증거하시던 승리자는 영모님 자신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박태선 영모님은 처음 출현한 승리자로서 앞으로 두 분의 승리자를 찾아 키워 세워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출현하는 승리자가 완성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 승리자는 유불선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세진인인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한 분의 승리자가 출현하면 모든 종교계에서는 다른 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한 분을 참 스승으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남사고(南師古)선생의 십승가(十勝歌)를 보자!

八萬經內普惠大師 彌勒佛之 十勝이요 팔만경내보혜대사 미륵불지 십승 義柳師三昧海印 正道令之 十勝이요 의상조사삼매해인 정도령지 십승 海外道德保惠之師 上帝再臨 十勝이니 해외도덕보혜지사 상제재림 십승 儒佛仙與言之說 末復合理 十勝이라 유불선이언지설 말복합리 십승

“팔만대장경의 보혜대사가 말한 미륵 불도 십승이요, 의상조사가 말한 해인을 들고 나오는 정도령도 십승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상제 하나님도 십승인데, 유불선에서 각각 기다려 온 완성의 하나님인 구세주의 명칭은 다 다르게 불리면서 왔지만 결국은 어떤 이름으로 오시든지 다 갈로 이슬성신을 들고 나오시는 같은 한분의 승리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22회)

전도관 제8편

이만제단 시대 제5부

십승가를 보면 참으로 감탄을 금할 수가 없게끔 세밀하게 알려 주고 있다. 생각을 잘못하면 각 종교에서 계속 자기네 종교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참 주인공을 배척하면서 허송세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상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종교에서건 한 분의 승리자가 나오면 전 종교는 그 분을 중심으로 합해져서 온 인류와 삼라만상이 하나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분열의 세계는 끝이 나고 하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세계로 완성되는 것이다. 승리자는 각 종교를 망라한 한 분의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박태선 영모님의 걸어가신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구세주 출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찾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영모님의 끝판의 역사까지 가보아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이 되면 독자들이 지루하고 혼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목 대목마다 결론을 내고 지나가겠다고 이미 독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 그래서 지금 조희성님이 완성의 승리자라고 결론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박태선 영모님 때는 전연 알 수가 없었던 내용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때는 박태선 영모님이 유일한 한 분의 승리자라고 알고 있었던 때였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다른 승리자는 생각지도 않았던 때였다.

2) 완성된 승리자는 조희성님

승리자는 세 분이 출현한다고 누누이 말했다. 세 분 승리자 가운데 박태선 영모님을 시작으로 두 분이 더 출현 하는데 세 분 중 맨 끝에 출현하시는 분

이 완성된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다. 세 분의 승리자가 끝에 출현한 분에게 오시어 합일되어 완성자가 되시는 것이다.(목3:21 참조) 이 분이 조희성님이 다.

그러면 완성된 승리자는 어떤 분이 되시는지 알아보겠다.

가. 조희성님의 성함(姓銜)이 승리자라고 예언되어 있다.

A. 조씨성(曹氏姓)

- 새41장(格庵遺錄中예) 人生秋收糴米端風驅飛(인생추수조미 단풍구비) 糴飄風之人弓乙十勝(조표풍 지인궁을십승)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승리자는(십승) 지게미 조(槽)에서 쌀 미(米)를 바랍 끝에 날려 보낸 분이다. (그러면 무리 曹남 남게 된다.) 지게미 槽(조)에서 쌀 미(米)자를 희라바람으로 날려 보낸 사람인 曹(조)씨가 궁을십승 즉 이기신 하나님이다.”

B. 희성(熙星) 함자(銜字)

- 初章(초장) 欲識養生保命處吉星照臨眞十勝(욕식 창생보명처길성조림진십승)

“영생의 지식을 배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곳이 그곳인데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즉 희성(熙星)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 곳을 말한다. 이분이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위에 예언된 내용은 曹熙星(조희성)이라고 하는 분이 승리자(十勝)라고 밝

히고 있다. 또 조희성님은 승리제단에서 매일 영생의 강론을 하시는데 예언서에는 승리제단에서 강론하시는 분이 승리자라고 예언되어 있다.

C. 승리제단(勝利祭壇)

- 初章(초장) 十勝十勝可十勝(십승십승하십승) 勝利臺上眞十勝(승리대상진십승)

“십승 십승 하는데 무엇이 십승인가? 승리대상 즉 승리제단 단상에서 강론하시는 분이 진짜 승리자 하나님이다.”

나. 승리하신 조희성님의 모습

지금까지 어떤 분이 승리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지금은 결론을 내려 승리자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 승리자 중에서도 완성된 승리자를 말한다. 완성된 승리자가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위에서는 분명 조희성(曹熙星)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조희성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는지를 설명하겠다.

6000년간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정도령님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키우시던 조희성님을 완성된 구세주로 다듬어 세우시기 위하여 마지막 연단 과정으로 들여보낸 곳이 곧 밀실(密室)이라는 곳이다.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생명을 내건 투쟁을 계속하였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지를 넘고 또 넘었다. 지금까지 도인들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책으로 많이 접해 보았지만 이 분 조희성님과 같은 연단 과정은 들어보지 못했다. 철저히 나를 짓기하고 죽이는 수도 과정이었다. 여기서 조희성님의 밀실에서의 대표적인 수도 과정을 다음 호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다.*

자신이 수도면 그 덕이 참되고

修之家 其德有餘(수지가 기덕유여): 가정이 수도하면 그 덕으로 여유로워지고

修之鄉 其德乃長(수지향 기덕내장): 마을이 수도하면 그 덕으로 커지게 되고

修之邦 其德乃豐(수지방 기덕내풍): 한 나라가 수도하면 그 덕으로 풍요로워지고

修之天下 其德乃普(수지천하 기덕내보): 천하가 수도하면 그 덕으로 널리 이루어지게 된다

以身觀身(이신관신): 자신으로서 자신을 지켜보고

以家觀家(이가관가): 한 집안으로서 집안을 지켜보며

以鄉觀鄉(이향관향): 한 마을로서 마을을 지켜보고

以邦觀邦(이방관방): 한 나라로서 나라를 지켜보며

以天下觀天下(이천하관천하): 천하로서 천하를 지켜보는 것이되다

吾何以知天下之然哉(오하이지천하지연재): 천하가 본래 그러한지 내가 어이 알겠소?

以此(이차): 이처럼 스스로를 관찰하는 자각(自覺)때문이다.*

김주호 기자

도덕경 해설

도덕경 54장 해설

하나에서 온 우주가 생겨났다. 온 우주는 꿈, 하나다.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혜안이 열린 도인(현인)들은 이를 내다봤다.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인간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밝히고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은 결과이다. 인간 자신을 밝히 아는 것이, 곧 자연의 만물 하나하나를 낱알이 아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인간 내면의 탐구를 도외시한 물질에 대한 탐구의 결과가 서양과학의 지금의 성과라면, 우리 동양의 정신과 유심론적 사고로서의 접근은 탁월한 발견이 아닐 수 없

다. 오늘날 최첨단 물리학에서 우주 만물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모든 물질과 인간마저도 형성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최첨단 과학 장비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놀랄게도 미시의 세계에서는 산 들 바다 하늘 인간 등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주 전체를 관찰하고 땅의 이치를 살피면서 드러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우주 가운데 다스리는 왕과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 하였고, 삼라만상을 대우주라 하였다. 대우주의 축소관이 인간이며, 소우주와 대우주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주장이다. 우주의 운행과 사계절의 변화를 대우주라 보았다면, 인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과 만사가 틀니바뀌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아 인간을 소우주라 본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바꾸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주역은 누구인가? 바로 인간이다. 외계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다.

완성의 도, 광명한 진리의 도가 나온 지금은 빛의 세계이다. 모르는 것이 없는 세계라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이 사실,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국가가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와 우주의 운행질서가 바뀌게 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선국(地上仙國) 건설의 첫걸음은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나 자신부터이다. 그래서 마음을 갈고 닦는 수도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상이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면,

善建者不拔

선건자불발

선을 세우는 자는 뽑히지 않고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